



민경진(부산장신대)

1. 느헤미야 13장에 관한 세 가지 질문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 생똥맞아 보인다. 이런 저런 질문도 제기된다. 우선, 부록 느낌이 든다.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12장으로 끝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²⁾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성전과 성벽의 중건, 그리고 유다 공동체의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 12장에서 개혁들이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³⁾ 느헤미야는 구약이 다루고 있는 주요 인물들 중 가장 마지막 시대의

-
- 1)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연구 년 제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2) 본 글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전제한다. Cf.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제19호 (2003), 447-61;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없이 가능한가?”, 『선교와 신학』 제36집 (2015), 75-101.
 - 3)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분석”, 『선구자들의 하나님: 설교를 위한 에스라-느헤미야서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262.

인물이므로 구약성경을 역사적 인물 중심의 ‘연대순’으로 배열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은 응당 느헤미야서일 것이다.⁴⁾ 따라서 느헤미야서가 중건된 성벽을 봉헌하는 느헤미야 12장에서 끝났다면, 구약성경 전체가 개혁의 완성을 보도하는 감동적 이야기로 깔끔히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느헤미야 13장은 이런 감동을 반감시킨다. 13장 역시 개혁 이야기를 다루기는 한다. 하지만 개혁의 내용은 에스라-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들(스 9장; 느 10장)과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사족(蛇足)처럼 느껴진다.⁵⁾

또한 느헤미야 13장에는 독특한 문구가 등장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기억해 달라!”로 요청하는 이른바 “기억문구”(remember formula)가 네 차례나 등장한다. 이 문구는 구약성경에서 열왕기서를 제외하면(왕하 20:3),⁶⁾ 모두 느헤미야서에만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서에 사용된 전체 6회 중 4회가 13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느 5:19; 6:14; 13:14, 22, 29, 31).⁷⁾ 이 문구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⁸⁾ 하지만 이 문구가 특히 느헤미야 13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적 문제도 있다. 6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의 12년간

-
- 4) 말라기 역시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지만 말라기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주전 430년 이전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Cf. Paul L. Redditt, *Haggai, Zechariah, Malach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149–50.
 - 5) 모빙벨과 켈러만은 느헤미야 13장이 없어도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Cf. Sigmund Mowinckel, *Studien zu dem Biche Ezra-Nehemia II: Die Nehemia-Denkschrift* (Oslo: Universitets-forlaget, 1964), 35–37; Ulich Kellemann, *Nehemia: Quellen Überlieferung und Geschichte* (Berlin: Töpelmann, 1967), 48–51. 슈타인즈 역시 13장을 후대의 첨가로 본다. Cf. Georg Steins, *Die Chronik als kanonisches Abschlußphänomen* (Weinheim: Beltz, 1995), 198–206.
 - 6) 히스기야의 기도에 등장한다(“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 7) 하나님께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이 (교만한) 요청은 다른 이유와 함께 유대전승 일부에서 느헤미야가 혹평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Babylon Talmud, Sanhedrin, 93b). 다른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전임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느 5:15,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온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 8) 기억문구의 독특성과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요약은 Hugh G.M.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민경진 옮김, 『에스라·느헤미야 개론』(서울: CLC, 2013), 30–34를 보라.

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파된다(13:6; cf. 5:14). 곧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알현한 후 불과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것이다. “며칠”에 해당하는 **כְּכַף יָמִים**(케츠 야림/날들의 끝)이 시간적으로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다지 오랜 시간은 아닐 것이다.⁹⁾ 따라서 12년간의 긴 총독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얼마 있지 못한 채 다시 파견된 셈인데, 이것은 유다 내부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급히 돌아온 이후 느헤미야가 처리한 일들에 대한 보도인 13장을 보면 긴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유다사회에서 늘 있어 왔던 안식일과 통혼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급파될 만큼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2차 예루살렘 방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13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12년 총독 재임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윤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⁰⁾

요컨대 느헤미야 13장은 사족처럼 느껴져 한 권의 마무리로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기억문구”가 이곳에 빈번히 사용된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느헤미야의 2차 방문은 긴급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귀국 후 행한 개혁의 내용을 보면 그 긴박성을 찾기 어렵다. 느헤미야 13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개별 문제들에 대한 연구였지 이 문제들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느헤미야 13장을 좀 더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읽기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9) 유사한 표현인 **כְּכַף שָׁנִים**(케츠 샴도)도 통상 “몇 해”(some years)로 번역된다(cf. NRSV, 표준새번역). 심지어 개역개정은 “이 년”으로 번역하고 있다(왕상 22:2).

10) 가령, Mowinckel, *Studien II*, 35-37. 하지만 윌리엄슨은 느헤미야의 대적 자였던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제공하는 일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기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Cf. H.G.M. Williamson, *Ezra, Nehemiah* (Waco: Word Books, 1985), 382.

2.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

느헤미야 13장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위의 세 질문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견해들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느헤미야 13장은 부록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신학적’ 의도에 따라 집필되었다는 김래용의 견해이고, 둘째는 13장 안의 독특한 “기억문구”를 느헤미야의 회고록(Nehemiah's Memoir)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윌리엄슨(Williamson)의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대적 자들로서 느헤미야 13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이윤경의 역사적 연구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느헤미야 13장에서 제기된 위의 문제들에 대해 ‘제한적’ 의미에서만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1) 신학적 의도를 지닌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과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다른 장들과는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특히 느헤미야 10장이나 에스라 9-10장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¹¹⁾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서로의 영향 관계와 유사성 문제에 집중되었지,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반면, 김래용은 최근에 느헤미야 13장이 성벽봉헌 기사에 덧붙여 있는 ‘부록’

11) 가령 느헤미야 10장 30-39절과 13장 사이의 내용의 유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f. Williamson, *Ezra, Nehemiah*, 331.

다루는 내용	느 10장	느 13장
통혼	30절	23-30절
안식일	31절	15-22절
제단에 나무 드림	34절	31절
첫 소산	35-36절	31절
레위인의 십일조	37-38절	1-0-14절
성전 방치	39절	11절

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온전한 개혁이었음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²⁾ 그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율법’을 전제로 한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에스라의 경우, 느헤미야 8-10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율법’을 먼저 제시한 후 개혁을 단행했다. 느헤미야 역시, 같은 패턴으로 개혁을 완수했는데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이라는 것이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개의 개혁 이야기 중 십일조와 안식일 문제는 굳이 율법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누구나 인지하는 것이므로 율법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세 이야기(도비아, 유다방언, 산발랏 이야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율법적 근거를 서두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1절; “암몬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¹³⁾ 따라서 김래용에 의하면 13장 1-3절은 12장 44-47절에 이어지는 단락이 아니라, 4절부터 전개되는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기능한다.¹⁴⁾ 요컨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처럼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사실 느헤미야 13장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포착되어 왔다. 가령 트론베이트(Throntveit)는 느헤미야 13장은 개혁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위험들을 유념할 것을 권면하려는 목적으로 최종편집자에 의해 배치되었다고 본다.¹⁵⁾ 박철우는 에스라-느헤미야서를 동일한 문학적 패턴을 지닌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 이 중 마지막 단락인 느헤미야 1-13장 중 종결부(12:44-13:31)는 “율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 치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째 단락(스 7-10장)의 종결부인 에스라 9-10장의 개혁과 평행을 이루는 기능

12)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제38집 (2010), 33-53.

13) 윗글, 44-45.

14) 루돌프 역시 1-3절은 4-31절의 느헤미야 개혁의 서언으로 기능하도록 역대기사가에게 의해 첨가된 것으로 본다. Cf. W. Rudolph, *Ezra und Nehemia* (Tübingen: Mohr, 1949), 202-203.

15) Mark A. Throntveit, *Ezra-Nehemi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4.

을 하고 있다고 본다.¹⁶⁾ 요컨대 느헤미야 13장은 부록이 아니라 개혁의 성격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에스라-느헤미야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2) 기억문구와 느헤미야 회고록

윌리엄슨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 활용된 자료들을 살피면서, 이 자료들 중 하나인 느헤미야의 회고록(Nehemiah's Memoir)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¹⁷⁾ 그는 느헤미야의 이 회고록 중 자주 등장하는 독특한 형식의 “기억문구”를 주목한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등장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은 당연히 성벽을 중건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느헤미야서에 여섯 번 나오는 기억문구 중 어느 것도 성벽중건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억문구와 관련된 단락들이 성벽중건과 ‘무관한’ 시기에 별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5장 14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첫 번째 총독임기가 12년 동안이었음을 회고하는데(5:14-19), 이 단락 마지막인 19절에서 기억문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드린다. 이것은 기억문구와 관계된 단락들이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에야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¹⁸⁾

이를 근거로 윌리엄슨은 느헤미야의 회고록이 두 단계에 걸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첫째는 성벽중건 사역 직후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작성했다. 이 회고록은 예루살렘에 온 후 1-2년 이내에 기록되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느헤미야 10장에서 백성들의 행한 서약과 관련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느헤미야에게 부당한 일들이 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이 떳떳했음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16)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제59권 (2016), 125-56.

17) Williamson, *Ezra, Nehemiah*, xxiv-xxviii.

18) 윗글, xxviii.

으로 두 번째 회고록을 작성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윌리엄슨의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작성한 회고록의 일부이며, 13장에 기억문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떳떳함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역사적 이해

최근에 이윤경은 느헤미야와 그의 대적 자였던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 흥미로운 역사적 연구를 했다.¹⁹⁾ 이윤경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따르는 극소수의 귀환자들과 함께 팔레스틴 정치개혁을 목표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느헤미야는 정결법을 내세워 순수 유대혈통 외의 세력들을 타자화해서 배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윤경에 의하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실패했다. 산발랏과 도비아로 상징되는 사마리아 계 유대인들과 암몬 계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주요 공략 대상이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후의 역사에서 줄곧 건재했었기 때문이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서에는 유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윤경에 의하면 이들은 혈통적으로 순수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훼종교 신봉자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산발랏이 이방인이었다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와 결혼한 것(느 13:28)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를 ‘호론’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데(느 2:10), 이 호론은 예루살렘 북쪽의 ‘벧호론’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²⁰⁾ 엘레판틴 문서는 산발랏을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마리아가 유다와 전격적으로 분열된 것은 후대인 헬라시대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산발랏의 아들들인 들리아야와 셀레미야의 이름은 그

19)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아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86 (2013), 5-29.

20) 산발랏이 유다 땅 벧호론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Cf. Harold H. Rowley, “Sanballat and the Samaritan Temple,” in *Men of God*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3), 246-76.

가 야훼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윤경은 도비야가 혈통적으로 암몬 사람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본다. 성경에는 도비야 가문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명문가로도 언급되고(스 6:10, 14), 보계를 알 수 없는 제사장으로도 언급된다(스 2:60; 느 7:62). 어느 쪽이든 도비야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 “중 되었던 암몬 사람”이라는 그의 호칭은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어 암몬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본다.²¹⁾ 도비야를 이렇게 이해해야 “야훼는 선하시다”를 뜻하는 그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 유력가문과 혼례를 치르고 동맹을 쉽게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느 6:17-19)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이윤경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를 굳이 적대적 태도로 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들과 대립하고 경쟁한 것은 페르시아 속주에 속했던 팔레스틴을 두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포로지역에서 돌아온 귀환자인 동시에, 순수 유대 혈통을 지닌 자만이 순수 신앙공동체일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이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야를 공격했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2차 방문과 그 이후의 개혁들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13장을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곧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철수하자마자 그 틈을 활용해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13:4-5), 산발랏은 대체사장 가문과 결탁하여 세력을 확산시켜(13:28) 자신이 구상했던 귀환 공동체 중심의 정치개편이 위협을 받자, 급히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13장의 배경이라고 추정케 한다.

21) 이윤경은 도비야를 “중이었던 암몬 사람”이라고 할 때(느 2:10) “중”에 해당하는 אֲבֵדִים(에베드)는 당시 페르시아 고급관리를 칭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12.

4) 평가

위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연구는 각각 느헤미야 13장을 이해하는데 일면 도움을 준다. 느헤미야 13장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에스라의 개혁처럼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나란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 기억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회고록의 두 번째 단계와 관련된다는 점에 유념해서 본문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귀환이 신앙적 개혁의 차원보다는 느헤미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느헤미야 13장을 읽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각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느헤미야 13장에 제기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김래용은 느헤미야 13장에서 행해진 개혁들(13:4-31)은 서언에 제시된 ‘율법’에 근거한 것(13:1-3)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13장 1-3절과 4-31절을 단절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²²⁾ 곧 전자는 에스라-느헤미야서 전체의 편집자의 글인 반면, 후자는 느헤미야가 작성한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전자는 후자의 서론이 아니라 앞의 12장 27절부터 이어지는 성벽봉헌의 결어로 본다.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13장 1절의 ‘그 날’(바유: כַּיּוֹם)은 12장 44절의 ‘그 날’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봉헌한 날(12:27)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²³⁾ 만일 그렇다면 13장 4-31절은 1-3절에서 제시된 원칙에 근거한 개혁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김래용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²⁴⁾

윌리엄슨은 기억문구를 토대로 느헤미야 회고록이 두 단계에 걸쳐 작성되

22) Tamara C. Eskenazi, *In An Age of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88), 116-22; J. Gordon McConville, *Ezra, Nehemiah, and Esth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5), 141-44; Jacob M. Myers, *Ezra-Nehemiah* (Garden City: Doubleday, 1965), 205-208; Joseph Blenkinsopp, *Ezra-Nehemiah* (London: SCM Press, 1988), 348-52;

23) Blenkinsopp, *Ezra-Nehemiah*, 351.

24) 여기에 느헤미야 13장의 개혁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0장의 백성들의 ‘서원’에 근거한 것이라는 배희숙의 견해를 고려한다면 김래용의 견해는 더 설득력이 약해진다. Cf. 배희숙,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대 재건 정책”, 『장신논단』 30집 (2007), 45-77.

었고, 기억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헤미야 13장은 두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회고록임을 주장한다. 또한 자신의 업적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윌리엄슨은 자신이 부당하게 평가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느헤미야 13장이 페르시아로 돌아간 직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할 만큼 급박했음을 고려한다면 당시 유다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산발랏과 도비야에 대한 이윤경의 역사적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 방문한 이유에 대한 정치적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전제를 지닌 이 견해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가령, 이윤경은 대제사장은 이방민족과 결혼이 불가능함을 들어(레 21:13-16)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사돈이 된 산발랏이 이방인일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²⁵⁾ 당시의 상당수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방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볼 때(스 10:18-23)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 또한 느헤미야의 2차 방문에 대해 이윤경의 말대로 페르시아의 속주였던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력 영향력을 두고 벌어진 ‘국부적’인 주도권 다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팔레스틴이 정치적으로 침엽하게 대립되었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한 후에도 10년 이상 유다에 체류하게 된 이유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다 내의 역학관계를 “느헤미야” 대 “산발랏과 도비야”의 관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견된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유다의 권력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페르시아가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²⁶⁾ 느헤미야는 첫 번째 방문기간 동안 제사장 견제의 임무를 충실히

25)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7.

26) 페르시아의 에스라의 파견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제17집 (2005), 78-100을 보라. 이곳에서 필자는 귀환 공동체 초기에는 페르시아가 제사장 그룹을 지원했지만, 그 후 유다 정로 그룹을 거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에는 레위인들을 지원한 과정을 설명했다. 레위인들을 통해 당시의 제사장 그룹을 견제하는 정책을 폈고,

수행했지만, 느헤미아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제사장들이 도비아 및 산발랏 세력과 야합해서 새로운 권력지형을 만들려 한 것이 느헤미야 13장의 정치적 배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정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2차 방문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느헤미야 13장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한다. 아래에서는 13장에 두드러지게 사용된 ‘기억문구’를 단서로 느헤미야 13장의 맥락과 의미를 위와 같은 문제를 유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3. 세 질문으로 다시 읽어보는 느헤미야 13장

1) 역사적/정치적 맥락

느헤미야는 본래 계획과는 달리(느 2:6), 12년간이나 유다에 체류하게 됐다(느 5:14).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중건 이외에, 총독으로서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된 것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가령, 와인버그(Weinberg)는 포로이후의 유다사회는 일반적 정치집단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 된 시민-성전공동체(citizen temple community)였다고 본다.²⁷⁾ 알트(Alt)의 견해를 수용해서,²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에 병합시켰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유다가 사마리아의 영향을 처음으로 벗어난 것은 느헤미야가 유다를 방문한 시기였다. 하지만 이때도 유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에, 총독에 의해 통치된 것이 아니라 “시민-성전공동체”에 불과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온 것이 아니며, 이 시민-성전 공동체의 지도

이런 레위인들의 신분상승은 당분간 지속됐음을 논의하였다.

27) Joel P. Weinberg, *The Citizen-Temple Community* (Sheffield: JSOT Press, 1992).

28) Albrecht Alt, "Die Rolle Samarias bei der Entstehung des Judentums", *Kleine Schriften II* (Munich: Beck, 1953), 316-37.

자의 역할에 그쳤다고 본다.²⁹⁾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뒤 사마리아에 병합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바벨론은 유다가 멸망한 직후 그달라를 유다지역 '총독'으로 임명했다(왕하 25:22-23). 또한 자신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느헤미야의 언명(느 5:14-15)은 느헤미야 이전에도 총독들이 유다에 파견되었음을 보여준다.³⁰⁾ 요컨대 느헤미야는 유다에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그의 1차 임기는 12년간이었다. 이 12년 기간에 분명히 알려진 그의 행적은 성벽중건이다. 그렇다면 성벽중건 이후 거의 10년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 기간의 행적은 역설적으로 느헤미야의 2차 임기 중에 있었던 그의 행적으로부터 추정해 볼 수 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2차로 방문해서 개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급히 귀국해서 행한 그의 개혁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곧 느헤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더라면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제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13:4-9).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13:10-14), 레위인들의 성문 감시 기능이 지속돼서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13:15-22). 또한 대제사장이 산발랏 집안과 정략 결혼을 맺는 일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이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여 자녀들에게 이방 언어에 더 친숙하게 하는 일은 아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14:23-31). 하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런 우려가 곧바로 현실이 됐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임기 동안 주력해왔던 일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떠나자 어떤 일이 유다사회에 일어났

29) Weinberg, *The Citizen-Temple Community*, 92-104.

30) Williamson, 『에스라·느헤미야 개론』, 97-100.

능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느헤미야 13장에 근거해 볼 때, 느헤미야가 없는 유다사회는 제사장 그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성전공동체 중심의 유다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견제 세력이었던 레위인들을 제압하려 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또한 외연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느헤미야식의 개혁에 반감을 지녔던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고, 정략결혼을 통해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 역시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 이와 같은 권력 재편과 이로 인한 제사장으로서의 권력 집중은 속국의 권력분산 정책을 선호했던 페르시아로서는 가장 우려스런 상황이었을 것이다.³¹⁾ 동시에 성벽중건 후 거의 11년간의 세월 동안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데 전력했던 느헤미야로서는 자신의 모든 업적이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³²⁾ 이와 같은 추정이 옳다면, 느헤미야의 다급한 예루살렘 재방문은 쉽게 이해가 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이해는 아래에서 살펴 볼 느헤미야가 두 번째 방문해서 실행한 13장의 개혁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제사장 견제와 레위인 후원

느헤미야 13장의 앞부분인 1-3절을 12장의 성벽봉헌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해해서 제외시킨다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수행한 세 가지 개혁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개혁 ①: 도비아 방 철거와 레위인 복귀(4-14절)

31) 당시의 페르시아의 제국 정책에 관해서는 Kenneth Hoglund, "The Achaemenid Context", in P. R. Davies (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Sheffield: JSOT Press, 1991), 54-72; Jon L. Berquist,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를 참조하라.

32)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에 에스라 일행은 4개월 걸렸다(스 7:9).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감을 고려한다면 여행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없는 유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개혁 ②: 안식일 기강 세우기(15-22절)

개혁 ③: 통혼문제 처리(23-31절)

이 이야기들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주제가 일관되어 있다. 곧 제사장을 견제하고 레위인들을 후원 혹은 배려하는 이야기이다. 상술(詳述)해 보자.

첫 번째 개혁 이야기(4-14절)는 도비야에게 제공된 성전 안의 방을 정결케 한 이야기와(4-9절), 낙향했던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인 이야기(10-14절)로 되어 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성전공동체였던 당시 유다사회는 레위인들이 일종의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급여는 백성들이 내는 산물의 십일조였고 이 십일조는 성전의 방에 보관되어 있었다(느 10:37-38). 그런데 갑자기 급여가 제공되지 않게 되자,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성전 업무는 당연히 중단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을 것이다(13:10). 이 이야기 앞 단락인 4-9절은 이런 위기 상황이 초래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곧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들이 엉뚱한 방식으로 관리됐음을 보여 준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백성들도 곡식과 십일조를 내지 않게 되어 재정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³³⁾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일을 바로 잡고 레위인들을 본래의 직무에 복귀시키자 백성들이 다시 곡식과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13:11-12).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정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레위인 브다야를 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한다(13:13).

성전공동체의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이 레위인을 홀대하고 오히려 대적자였던 암몬사람 도비야에게 편의를 봐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33) 레위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십일조가 레위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아서 유다사회가 어려워진 이 당시의 상황은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도 반영되어 있다. Cf. David J.A. Clines, *Ezra, Nehemiah, Esther*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4), 241.

이 이야기는 당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적대적 관계로 보거나 최소한 경쟁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해가 된다. 제사장들 건제 세력으로 레위인들을 후원했었던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에, 페르시아로 돌아온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급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개혁은 안식일 기강을 세운 사건이다(15-22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안식일이 엉망이 됐다. 두로 사람을 비롯한 장사꾼들이 버젓이 예루살렘 안에서 온갖 상(商)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가 강하게 질책한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핵심은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들을 만든 후,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성문 출입을 통제하게 한다. 안식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은 물론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이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 시대에 걸쳐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렘 17:21; 겔 20:16, 21; 23:38; 암 8:5 등). 곧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긴급히 돌아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안식일 개혁 역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드러난 ‘안식일’ 문제는 결국 그 책임을 제사장에게 귀속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전공동체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안식일 개혁 이야기는 거룩한 안식일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끈 제사장에 대한 비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이 안식일 준수의 필수적인 조건인 성문 통제의 권한을 레위인들에게 맡김으로써 첫 번째 개혁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비단 안식일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권력 다툼의 문제였고 이 문제였기에 느헤미야가 급히 귀국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은 통혼문제를 다루고 있다(23-31절). 이 개혁은 이방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탓에 자녀들이 유다방언을 못하게 된 상황을 질책하

며 시작한다. 하지만 질책이 과도하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뽑는다. 더군다나 솔로몬을 거들먹거리면서까지 통혼을 문제 삼는다. 주변국가의 여인들과의 통혼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응당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솔로몬을 거명한 것 역시 정략결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 통혼 개혁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결국 산발랏 가문과 혼인을 한 제사장 엘리아십이다(28절). 이것은 솔로몬 이야기까지 동원해서 통혼의 심각성을 폭로함으로써 결국 제사장 세력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엘리아십 가문을 향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레위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중죄로 거명함으로써(28-29절) 레위인들에 대한 상대적 편애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레위인들이 다른 외적 상황이나 공격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식화함으로써(30절) 레위인에 대한 또다른 배려를 하고 있다.

요컨대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유다의 권력을 자신들이 선점하려 했던 제사장들은 경쟁자였던 레위인들을 견제하거나 업무에서 떠나게 하고, 오히려 산발랏과 도비야로 상징되는 외부 세력과 연합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이 상황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보고되었고, 이 상황은 느헤미야 자신이 1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일구어 낸 페르시아의 권력분산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에 놓이게 됐다. 이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통해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했는데, 이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실려 있다. 따라서 13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세 가지 개혁 이야기는 동일한 목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은 13장에 반복되고 있는 “기억문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3) 기억문구와 느헤미야 13장

전술한 대로 13장에는 기억문구가 네 번 등장한다(14, 22, 29, 31절). 이 중 14, 22, 31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인 반면, 29절

은 느헤미야 자신이 아니라 통혼을 한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레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이들의 잘못을) 기억해 달라는 문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29절의 기억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기억문구를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락	제사장 견제	레위인 배려	기억문구
4-14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아십 추방 • 상설재정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위인 업무로 복귀시킴 • 레위인 브다야를 상설재정위원회 위원에 임명 	“내 하나님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 하옵소서”(14절)
15-22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엉망이 된 안식일에 대한 책임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문을 지켜 안식일 준수 총책임을 레위인에게 맡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22절)
2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산발랏 가문의 혼례 질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위인에게 맡겨진 고유 업무의 독립성 공식화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 하사 복을 주옵소서.”(31절) ³⁴⁾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각 단락의 마지막은 기억문구로 끝난다.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요구이다. 자신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사장을 견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을 배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긴급히 방문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의 완수한 업적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이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느헤미야의 이 중요한 사역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치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분산 정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견제하고 레위인을 배려하고 후원한 이 사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아야 앞뒤가 맞는다. 곧 아닥사스다가 다시 부여한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을 재

34) 13장 31절의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문장은 “나의 하나님, 저의 선한 행실을 살피시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옳다. Cf. 민경진, “당돌한 요구인가?,” 『선구자들의 하나님』, 166-68을 참고하라.

방문한 느헤미야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여, 제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었으니,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한 이해일 것이다.

사실 느헤미야 회고록에 사용된 “기억문구”는 고대 애굽의 무덤이나 비문 등에서도 종종 발견된다.³⁵⁾ 특히 학자들은 주전 6세기경에 애굽 출신의 우자호레스네트에게 관심을 기울였다.³⁶⁾ 느헤미야처럼 오랫동안 페르시아 지방 행정구역에 관리로 파견돼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우자호레스네트는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억문구”를 통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자호레스네트 역시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스에 있는 위대한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다.³⁷⁾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후 자신의 두 번째 회고록인 느헤미야 13장을 작성할 때,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달라고 한 이유 역시 우자호레스네트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이 호명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자호레스네트의 기도에 등장하는 “사이스에 있는 위대한 신들” 역시 페르시아의 신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의미한다. 사이스는 애굽의 델타 서쪽 지역을 의미하고 사이스의 수호신은 고대 이집트의 여신 네이트(Neith)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지만 개인이 선호하는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5) Cf. Gehard von Rad, “Die Nehemia-Denkschrift”,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6 (1964), 176-87.

36) 가령, J. Blenkinsopp, “The Mission of Udjahorresnet and Those of Ezra and Nehem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409-21.

37) “네이트이 인정하는 자, 그가 말하기를, ‘사이스에 있는 위대한 신들이여! 의사장 우자호레스네트가 행한 모든 선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기념되게 하옵소서!’. Cf. 소형근,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와 유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구약논단』 54집 (2014), 311-35쪽 중 318쪽에서 인용.

4. 요약 및 함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읽을 때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본 글을 시작하였다. 부록 같은 느낌, 독특한 기억문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해 급히 재방문했지만 그렇게 급히 서두를 만큼 긴박한 사건들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건들이라는 점이였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학자들의 몇몇 연구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견해들은 개별 질문들에 대한 부분적 답변은 될 수 있지만 본 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가는 한 실마리로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13장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시작해 보았다. 이점에 유념하여 13장의 정치적 상황을 추론하고 기억문구가 자주 사용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 13장과 관련하여 서두에서 제기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역순서로 답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일차 방문 12년 동안 주력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암시해 준다. 곧 느헤미야가 다급히 돌아와서 수행한 개혁들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이루어놓은 성과들이 위협받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가 이 두 번째 방문에서 행한 일은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고, 레위인들을 배려하고 후원한 것으로 요약된다.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 엄하게 처리한 것은 이들이 사마리아와 암몬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권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둘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업적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억문구”를 통해 간구하고 있다. 성벽중건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도 이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는 점에서, 느헤미야 13장의 이 낮은 간구의 방식은 그만큼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의미한다. 곧 제사장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어 가고 산발랏과 도비아 세력이 이에 협조하는 위급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관리로서의 역할을 충

실히 이행한 것은 옹당 페르시아 왕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업적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체류 동안 주 력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느헤미야의 방문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부록으로 볼 수 없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최종편집자는 느헤미야 13장을 이런 정치적 맥락을 엿보게 하는 효과 외에도, 느헤미야 12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단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개혁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끊이지 않음을 느헤미야 13장은 보여주려고 했겠지만 말이다.³⁸⁾

5. 참고문헌

- 김래용. “에스라 9-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특징과 역할”. 『구약논단』 38 (2010): 33-53.
-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한 권인가, 두 권인가?” 『장신논단』 19 (2003): 447-61.
- _____.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레위계 기원: 역사적 맥락”. 『구약논단』 17 (2005): 78-100
- _____. 『선구자들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5.
- _____.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없이 가능한가?” 『선교와 신학』 36 (2015): 75-101.
-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 (2016): 125-56.
- 배희숙.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재건 정책”. 『장신논단』 30 (2007): 45-77.

38) 민경진,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분석”, 261-62.

- 소형근.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의 우자호레스네트와 유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구약논단』 54 (2014): 311-35
- 이윤경. “느헤미야, 산발랏, 도비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느헤미야 개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 (2013): 5-29.
- Alt, Albrecht, “Die Rolle Samarias bei der Entstehung des Judentums”. *Kleine Schriften II*. Munich: Beck, 1953, 316-37.
- Blenkinsopp, Joseph, “The Mission of Udjahorresnet and Those of Ezra and Nehem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409-21.
 _____, *Ezra-Nehemiah*. London: SCM Press, 1988.
- Berquist, Jon L.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Clines, David J. A. *Ezra, Nehemiah, Esther*.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4.
- Eskenazi, Tamara C. *In An Age of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Hoglund, Kenneth, “The Achaemenid Context”, in P. R. Davies (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Sheffield: JSOT Press, 1991, 54-72.
- Kellermann, Ulich. *Nehemia: Quellen Überlieferung und Geschichte*. Berlin: Töpelmann, 1967.
- McConville, J. Gordon. *Ezra, Nehemiah, and Esth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85.
- Mowickel, Sigmund. *Studien zu dem Biche Ezra-Nehemia II: Die Nehemia-Denkschrift*. Oslo: Universitets-forlaget, 1964.
- Myers, Jacob M. *Ezra • Nehemiah*. Garden City: Doubleday, 1965.
- Rad, Gehard von, “Die Nehemia-Denkschrift”.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6 (1964), 176-87.
- Redditt, Paul L. *Haggai, Zechariah, Malach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 Rowley, Harold H. "Sanballat and the Samaritan Temple", in *Men of God*.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3, 246-76.
- Rudolph, Wilhelm. *Esra und Nehemia*. Tübingen: Mohr, 1949.
- Steins, Georg. *Die Chronik als kanonisches Abschlußphänomen*. Wein-
heim: Beltz, 1995.
- Throntveit, Mark A. *Ezra-Nehemi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 Weinberg, Joel P. *The Citizen-Temple Community*. Sheffield: JSOT Press,
1992.
- Williamson, Hugh G.M. *Ezra, Nehemiah*. Waco: Word Books, 1985.
- _____. *Ezra and Nehemiah*. 민경진 옮김. 『에스라 • 느헤미야
개론』. Seoul: CLC, 2013.

검색어

느헤미야 13장

기억문구

산발랏

도비아

느헤미야

Nehemiah 13 Investigated Anew in Light of Three Questions

Kyung-Jin Min,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work deals with three questions raised when reading Nehemiah 13. Firstly, this chapter seems auxiliary. It looks better for the book of Nehemiah to cease at chapter 12 where it conveys the moving story of the wall dedication. Secondly, the so-called “remember formula” is rarely used in the Old Testament, but it quite frequently occurs in chapter 13. Awkwardly, however, it is used in relation to the unexpected narratives rather than that of the wall-rebuilding. Lastly, Nehemiah 13 reports his second visit to Jerusalem. It is hard to understand, though, the purpose of the visit when considering his achievements that the chapter conveys. They were not urgent enough for him to come back without his taking a rest in Persia.

Several proposals have been advanced to answer these questions. For instance, there has been a proposal to see the chapter as significant and theologically intended

www.kci.go.kr

by the author. Another was on the “remember formula” put forward by Williamson who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Nehemiah's memoir. The last was a historical study of Sanballat and Tobiah, which helps us to comprehend the political context of Nehemiah 13. These proposals, however, offer, at most, limited answers to our questions.

Nehemiah stayed 12 years during his first visit to Jerusalem. But the book hardly mentions what he did for such a long time after he finished rebuilding the wall. Nehemiah 13 gives us a clue to suppose what he performed during the period, and what he aimed at and reformed during the second visit. My study on the chapter discloses that his mission was to keep priests in check and to support the Levites who were their opponents. This view is confirmed by the “remember formula” that appears in the last verse of each section in the chapter. From the discussion above, we may conclude that Nehemiah 13 is not an appendix but plays an important role to shed a light on the political context of Nehemiah 13.

Keywords

Nehemiah 13

the “remember formula”

Sanballat

Tobiah

Nehemiah

- 투고일: 2018년 3월 17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28일

www.kci.go.kr